

A Study on the Necessity of Death Education from an Anthroposophical Perspective

Myongsu Kim^{*}

Dongguk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necessity of death education from an anthroposophical point of view. It is to find the interface between anthroposophy and death science through research on the subject, and to explore how it should be recognized and dealt with in terms of education.

CONTENTS To accomplish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death and educational methods through anthroposophy, which explores human wisdom. The reason is that finding the connection between anthroposophy, which aims for a holistic human being, and deathology based on the dignity of human existence, and attempting a mutual approach is the basis for understanding life and death.

RESULTS As a resul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aims to ‘become a human being with dignity’. Second, to recognize ‘life and death as a process’. Third, ‘structuring through education’ is necessary. If a new research area can be derived by developing the three propositions pursued in common by the disciplines of anthroposophy and death studies, I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better than the present ones, and I hope that this study will be a small starting point. Expectations are the direction of this study.

KEY WORDS Anthroposophy, Holistic View of Man, Reincarnation View of Man, Thanatology, Death Education, Dignified Man

^{*} **Corresponding to** Myongsu Kim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E-mail : unicon1985@hanmail.ne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인지학 관점의 죽음교육 필요성 연구

김명수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대학원생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지학 관점에서 죽음 교육의 필요성을 논하는 데 있다. 주제의 연구를 통해 인지학과 죽음학의 접점을 찾고, 그것을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서이다. 인간 존엄을 통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필요한 덕목을 찾아 교육적 관점에서 구조화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지혜를 탐구하는 인지학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인식과 교육방법을 탐구하고자 한다. 직관을 함양하고 초감각적 세계의 통찰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달시키고 육체·영혼정신이 조화로운 총체적 인간을 지향하는 인지학을 매개체로 하여 죽음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 존엄한 죽음을 대비하는 학문으로서 죽음학은 인간 존재에 대한 존귀함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완전체로서의 인간을 지향하는 인지학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지학과 죽음학의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인식하는 것이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인지학의 관점에서 죽음을 이해하고, 죽음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지향하여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방법론을 찾는 과정에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바람직한 일이 없다고 본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지향’하는 것이다. 존엄을 기본으로 삼지 않으면 사회에서 표출되는 문제점들은 개인적 이기주의에 승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과정으로서 삶과 죽음’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다. 과정이라는 인식을 통해 죽음이 가지고 있는 단절의 개념을 변모시켜야 일상이 바뀌어 갈 수 있다. 셋째, ‘교육을 통한 구조화 작업’이 필요하다. 교육을 체계화시키는 구조화 작업은 필수영역이다. 인지학과 죽음학이라는 학문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세 가지의 명제를 발전시켜 새로운 연구영역을 도출해 낼 수 있다면, 학문적 성취결과에 따라 현재보다는 나은 결과를 이룰 것이라는 바람으로 본 연구의 시도가 작은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본 연구의 지향점이다.

주제어 인지학, 총체적 인간관, 윤회적 인간관, 죽음학, 죽음교육, 존엄한 인간

I. 서 론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Anthroposophie)은 인간의 지혜를 탐구하는 학문이다(Koh, 2019: 1)¹⁾ 인지학의 대상은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가 아닌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존귀한 존재로서 인간을 탐구하고 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지양하면서 육체·영혼·정신이 조화로운 완전한 존재를 찾고자 하였다. 완전한 존재는 과정으로서의 삶과 죽음에 연연하지 않는다. 삶은 완전하기 위한 반복되는 여정이고, 죽음은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한 과정일 뿐인 것이다. 인지학에서는 완전한 존재를 ‘총체적 인간’으로 표현한다. 그런 완전체로 가기 위한 여정으로서 삶을 바라본다면, 각성하기 이전보다 진지한 형태인 과정으로서 삶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엄의 마음이다. 인간에 대해 존엄성을 갖게 될수록 죽음에 대한 관점도 달라진다.

생명이 유한한 육체가 정신·영혼의 세계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면, 육체에 투영되는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도도 병행하여야 한다. 인지학은 새로운 삶을 통해 성숙을 넘어선 완전체로 가는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이며, 죽음을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존엄한 죽음을 연구하는 ‘죽음학’과의 연계성이 여기에 있다. 인지학과 죽음학은 과정으로서 삶과 죽음을 바라보며, 육체의 한계성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정신과 영혼으로부터 분리된 육체를 두고 표현을 달리하고 있으나 귀결점은 같은 존중의 의미라 할 것이다. 단지, ‘총체적 인간’을 지향하는 인지학이 삶의 반복을 통해 완전체로 나아가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면, 죽음학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절차나 방법 등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차이가 날 뿐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자연현상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조 속에서 죽음은 금기의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삶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죽음연구나 해석이 소극적인 것은 육체로 한정 지어진 삶이 죽음을 통해 단절되고, 죽음 또한 생물학적 현상으로 규정짓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학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그것이다. 관리되는 죽음이 아닌 존엄한 죽음은 업(karma)에 의해 계속되는 삶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형성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죽음의 압박감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있다. 죽음에 대해 생각이 열려있어야 영혼의 무한성을 인식하게 되고, 이후에야 새로운 관점에서 삶과 죽음을 생각할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금기의 영역으로서 죽음이 아닌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학문의 영역에서 직관과 통찰을 염두에 두고 인간의 영적 체험에 기초한 인지학은 죽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한적 사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죽음 교육 분야의 지향

1) 오스트리아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이고 예술가인 루돌프 슈타이너가 창안한 학문으로 신의 지혜를 탐구하는 신지학과 비교하여 인간의 지혜를 탐구하는 학문을 인지학이라 칭하게 되었다.

점과 맥을 같이 한다. 죽음에 대한 이해를 염두에 두고 평온함과 자유로운 상태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과정으로서 삶과 죽음을 바라보고 나서야 죽음에 초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지학은 완전체로서 자아를 성숙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삶과 죽음을 논하고 있으며, 삶과 죽음을 반복해가는 과정의 결과로서 ‘총체적 인간’이 되는 것이다. 죽음학이 내세의 관문으로 죽음을 논하면서 다루어야 할 여러 가지 덕목의 교양을 통해 죽음을 이해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지학과 죽음학의 접점을 찾고, 그것을 교육적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탐구하기 위해서이다. 공통적인 관심 사항을 찾아내어 죽음 인식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 된다면, 학문으로서 죽음학 영역의 확장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본 연구를 통해 시도하고자 했던 것은 첫 번째, 인지학과 죽음학의 이해를 얻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사전이해를 통해 지향하고 있는 학문적 공감대를 찾아보고 공통되는 논점을 제시하여 죽음의 의미를 고양 시켜 보고자 하였다. 세 번째, 기본적 인식의 변화를 통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를 고민하여 보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지학과 죽음학의 접점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있다면, 그 결과물을 통해 기준틀을 가진 구조화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 인지학과 죽음학의 이해

1. ‘직관과 통찰’의 인지학

인간의 지혜를 탐구하는 인지학은 육체만의 인간이 아니라 영혼과 정신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서 인간을 탐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Jeon, 1996: 220). 존귀한 존재인 인간의 지혜를 탐구하면서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일원화하여 육체·영혼·정신이 조화롭게 일치된 진정한 자아로서 인간을 찾고자 하였다. 인지학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의 사유에 대한 직관은 사유와 자연의 관계를 통한 창조에 대한 문제로 시작되었다. 인간 내면의 사유공간에서 모든 사고를 완전히 개관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불확실한 느낌에 이끌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고 조화롭게 일치된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이 그것이다. 정신세계의 탐구를 위하여 인간이 영혼을 통해 정신세계를 체험하려면 생각 자체가 자연현상의 본질에 다다를 수 있는 구조화 작업이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인지학에서 제시하는 인간상은 육체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순수한 영혼의 직관을 통해 조화로운 정신세계에 입문하는 것이 완성된 인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이 ‘총체적 인간관’이며 완전한 존재로서 인간을 탐구하는 관점이 된다. 다른 관점은 ‘윤회적 인간관’이다. 인간의

역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인간 본성이 내적 실체로서 영혼과 정신을 의식하고 있었던 고대인들의 사고에 공감하면서 유한한 육체의 영역에서 벗어나 영혼의 무한성을 바탕으로 물질의 본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정신은 인간의 핵심이며, 육체는 정신이 감각적 세계를 관찰하고 인식하여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매개체이고, 정신과 육체를 이어주는 것이 영혼이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라는 과정은 육체가 영혼, 정신과 단절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완성된 인간이 되기 위해 죽음을 거친 인간의 영혼과 정신은 다시 육체와 결합 되어 영혼의 세계로부터 전생의 삶과 일치된 업에 의해 다시 태어난다. 업은 인간의 누적된 삶의 표현이며 새로운 삶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인간은 윤회하며 환생을 통해 더 높은 경지로 자아(ego)를 발달시키게 되며, 진정한 자아는 내적 정신세계가 반영되어 표출된 형태가 된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인간관은 현대 물질과학의 세계를 부정하는 초감각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 총체적 인간관에서 완전체인 자아의 구현을 이루고자 하였고, 윤회적 인간관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지향하는 인간의 본 모습을 찾고자 하였다. 변형되지 않은 고대인들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인지능력을 이해하고, 초자연적 세계관에 동감하며, 영혼의 실체를 탐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 육체의 내적 실체인 영혼과 정신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매개체이고, 삶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진정한 완전체로서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을 통해 영혼과 정신은 더욱 정제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이다. 태어남이 업에 의해 만들어진 삶의 변형이라면 죽음 또한 자아의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존엄한 존재인 인간의 육체가 영혼·정신과의 분리를 통해 또 다른 내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대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탈피하고 초감각적 세계를 이해하여야 한다. 죽음 또한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유기체의 시효완성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자연적인 부분으로 존중을 받아야 한다. 존엄한 존재로서 인간을 자각하고, 과정으로서 죽음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점에서 인지학은 죽음학과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다.

2. 죽음학의 이해

죽음은 모든 인간이 맞게 되는 통과의례로서의 한 과정이다. 철학적 관점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죽음을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대의 이데아론과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내세의 관문인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내세의 삶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죽음을 바라보는 견해이다. 두 번째는 불가지의 대상으로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겪어보지 못한 두려움의 성찰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견해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삶의 동인으로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죽음을 생각하며 존재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순간 삶에 대한 의미가 더욱 새로워지고 강렬해지므로, 죽음이 삶을 부단히 이끌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직접적인 원동력이 된다

는 견해이다. 위의 세 가지 유형을 통해서 바라본 죽음은 인정하거나 이해를 통해 극복하는 대상의 계기로 삼고자 하지만, 결국 미지의 영역임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학의 영역으로서 죽음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원리와 삶의 본질을 연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가 삶의 문제로 전환이 되고, 삶의 문제인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된다. 인간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탐구하는 건 사유의 결과물로 나타난다. 결과물은 다시 필요한 분야의 검증을 통해 나눔의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나눔 실천의 장인 교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죽음학(Thanatology)’이란 인간이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반드시 찾아오는 규범적 생애 사건인 죽음에 대하여 다루는 학문이다(Lim & Shin, 2017: 35). 죽음학의 주요 내용은 ‘죽음 이해’와 ‘임종 결정’, ‘죽음 문화’, ‘죽음과 함께 오는 상실·비탄·애도의 치료’, ‘유족 상담’, ‘상담 치료’ 및 ‘죽음 교육’ 등의 주제를 가지고 죽음을 대하는 당사자와 유족들의 심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죽음학은 여러 가지 분야들이 결합을 통해 융합된 융합학문으로 인문사회적 접근을 통해 철학과 윤리, 종교학, 심리학, 교육학 등에서 연구(Dicken, Jeon trans., 2008: 34)되고 있고 의학, 간호학, 보건학 등의 자연과학적 접근도 시도되고 있다. 현대 물질문명의 시대에서 죽음은 관리되고 있으면서도 가족으로부터 점차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핵가족화 현상과 예에 대한 교육이 교육현장에서 소외되어 진 결과이다. 다른 측면에서 입시 위주의 ‘몰아세움(Gestell)’ 교육의 풍조가 현실에 반영된 결과(Korea Heidegger Society, 1999: 117)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교육의 본래 목적인 가르침의 개혁을 통해서라도 자연스럽고 존엄하며 품위 있는 죽음으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 필요성에 의해 물질문명이 극대화된 지금의 현실에서 다양한 발달단계에 맞는 ‘죽음준비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는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다.

죽음학을 연구하는 ‘싸나톨로지스트(Thanatologist)’들은 죽음 교육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죽음 교육 전문가’ 또는 ‘임종 치유사’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죽음 문화와 슬픔(비탄) 치료, 임종 영성 치료의 영역까지 포함한 전문가를 통칭한다. 1990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고 멕시코의 시인이자 사회철학자인 파즈(Octavio Paz, 1914-1998)는 ‘죽음을 외면하는 문명은 생명을 외면하면서 종말을 고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죽음과 삶의 질을 높이기 방안으로 준비되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죽음 교육전문가에게서 모든 사람이 좋은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됨으로서 준비되는 죽음을 거쳐 갈 수 있다고 하는 논지이다.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삶을 이해하여야 하고, 삶을 이해한 이후에 비로소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역설한 것이다.

Ⅲ. 과정으로서 죽음 이해

1. 죽음의 인식에 대한 고찰

대다수 사람은 죽음을 삶과의 단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한 생각이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육체의 유한함에 근거하고 있다. 유한한 삶에 대한 인식은 죽음을 삶과의 단절로서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삶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일상생활에서 폐쇄적인 반사회적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묻지마 폭행’ 등의 사회적 폭력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종교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내세의 삶을 확인할 수 없는 유가에서는 현실의 내적 충실을 ‘효’와 ‘예’로 표현하여 이승에서의 삶의 지침을 표현하고 있으며, 불가에서는 업에 의해 규정되어 지는 내세의 삶을 위해서라도 현세의 삶에 대한 금욕적 자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기독교의 내세관은 완전체인 하느님을 믿어야 전지전능한 능력을 통해 구원을 받아 가는 내세의 세상이 천국으로 표현되고 있다. 결국, 종교를 통해 보이는 생사관도 현생에서의 금욕과 자제를 통해 더 나은 세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은 금기와 망각의 공간(Kim, 2002: 209)이며, 내재적인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근대 물질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양산된 출세를 위한 도구로서의 교육이 마음의 병을 도외시한 것(Choi, 2002: 208)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인다. 죽음 교육의 학문적 유입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이다. 자생적 죽음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 등의 교육들이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죽음 교육은 서구의 경제적 가치와 결합된 지식의 이식으로 인해 기준점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모호한 형태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²⁾로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학문적 종속의식’으로 비판(Jang, 2001: 6)하는 시각을 보더라도, 근대 이전의 전통적 죽음 교육의 맥락과 서구에서 유입된 죽음 교육의 절충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자생적으로 문화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사회는 외부에서 유입된 문화의 식민지화된 문화가 주류일 수밖에 없다. 죽음 분야에 대한 한정된 고민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구성과 통합을 통해 기존의 사유 틀을 극복하는 방안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이다.

2) 다음백과(<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24p0286a>)에 의하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인 프로크루스테스(일명 Polypemon라고 쓰며 Damastes라고도 한다.)는 악명 높은 강도였으며, 지나가는 행인을 잡아 자신의 집에 있는 철침대에 눕혀 행인의 키가 작으면 다리를 늘려 맞추어 죽이고, 키가 크면 다리를 잘라내어 죽였다고 한다. 이것은 기준을 정해 놓고 무리하게 끼워 맞추려는 입장이나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2. 죽음 이해교육의 필요성

1) 죽음 이해가 필요한 이유

삶의 반대되는 개념을 죽음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대다수인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념 외에는 얻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체험하지 못한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남아 있는 삶의 모습을 순응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죽음이라는 명제를 통해 삶이 충만해질 수 있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한 죽음에 대한 이해는 내세의 관문으로 바라보거나 불가지의 대상, 혹은 삶의 동인으로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여유롭게 하여줄 수가 있다.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때도 온전하고, 건전한 삶에 대해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내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 누리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다른 이유로는 죽음에 대한 인식을 단절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자유로움이다.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절의 개념을 과정으로 인식 전환 한다는 것이다. 한시적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영혼과 정신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 인식을 바꾸어야만 한다. 그것이 인지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진정한 자아로의 접근절차이며, 죽음이 학문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존엄한 죽음’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경험하지 못한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홀(Manly P. Hall)은 ‘환생, 카르마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Hall, Yoon & Nam trans., 2019: 139-140)에서 “환생의 원리를 깊게 연구한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평균적으로 800회 정도 환생을 한 후 비로소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치고 카르마의 굴레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라고 함으로서 카르마를 통한 정신적 각성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죽음을 내적 각성의 과정으로 보고 새로운 삶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새로운 삶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 그러나 인지할 수 없는 새로운 삶에 대해 의미를 두고 있지 않기에 죽음이라는 과정에 대한 사전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시적 육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삶을 영위하면서 단절이라는 죽음의 한계상황에 봉착하였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사전이해를 통해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필요한 것이다. 환생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삶과 다른 삶이기에 이생에서의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과정으로서의 죽음 이해가 필요하고 내적 충만함으로 귀결되어 진다. 그것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이며 능동적 삶의 주관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2) 죽음 이해의 교육적 해석

죽음이라는 어두운 주제는 이해를 통해 교육으로 승화를 시켜야 한다. 개별적 의견을 뒤로하

고 보편타당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학문적 성과물들과 마찬가지로 관념과 인식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이해는 공유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전담하는 죽음 교육이 ‘죽음학’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실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학문의 틀은 죽음에 대한 세밀한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다. 죽음에 임하는 당사자의 심리나 죽음을 바라보고 겪어야 하는 유족의 심리를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다. 교육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하는 이유이다. 죽음에 대한 교육적인 사유 틀의 재구성을 통해 죽음을 이해하여야 죽음 이해는 더 나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시원 학문으로서 철학은 가지고 있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론이기도 하다. 죽음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철학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통섭 학문으로서 죽음학은 철학과 예학을 아우르는 실용적 학문의 범주로 분류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통해 정형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삶에 대한 동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확장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교육의 측면에서 이를 수 있기에, 교육적 해석을 통한 죽음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된다. 전통에 기초한 교육적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유학의 한 분야로서 주자학은 관례와 혼례, 상례와 제례로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밀한 구분을 지어 놓았다. 이중 상례와 제례를 통해 죽음과 이별의 과정을 예로 정형화한 좋은 선례라 할 수 있다.

교육적 해석이라는 의미는 교육의 본래 목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에 걸맞게 삶의 동인으로서 죽음을 이해시키는 교육적 방법을 찾고자 함이다. 경험하지 못한 추상적 관념의 상태에서 바라보는 죽음을 정형화시켜 이해시키는 방법을 찾아내 교육을 통해 확장해 나가는 것이 죽음 이해 교육의 지향점이다. 학위과정에서 다룰 수 없는 형이상학적 주제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과정이나 평생교육시설의 강좌에서 교양과목으로 다룬다면 도리어 관심 있는 사람들의 구심점이 생겨 분야가 확장되는 동력으로 적당하게 자리 잡을 듯하다. 교육은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전문가 집단인 교수자의 개별의견이나 편향성 있는 소수의견이 아닌, 교육과정의 생성을 통해 일반화된 지식과 지혜의 대상으로 죽음이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된다.

3) 존엄한 삶으로의 죽음 이해교육

존엄한 삶은 죽음을 존엄함으로 이끌어간다. 인간의 삶에 대해 인정하듯이 죽음, 또한 순응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물체로서 인간의 육체는 생·노·병·사의 과정을 거쳐 소멸이 된다. 그러나 인지능력을 갖춘 영혼과 정신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지학에서는 영혼과 정신, 육체가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다. 육체의 한계성을 인정하면서도 ‘업’의 개념을 통해 완전체로서 인간을 지향하고 있다. 업의 결과로 만

들어진 삶이 반복되어 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과정으로 삶과 죽음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한 과정으로 죽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보다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단절을 전제로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끝은 죽음이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

죽음 이해는 과정으로서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어 진다. 인지학의 관점이 과정을 통해 성숙해지고 완전체로 변모해간다는 가정하에서 존엄한 죽음을 연구하기 위한 죽음학과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분야가 망라된 융합 학문으로서 죽음학은 보편적 학문체계를 가지고 있다기보다 죽음 이해를 하기 위한 필요적 방편으로서 자리하는 실정이다. 현실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죽음 이해 교육이 다른 교육과정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인간의 지혜를 탐구하는 인지학은 완전체로 성장하는 과정으로서 삶과 죽음을 바라보기에 죽음 이해를 하기 위한 학문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토대 위에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존귀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이해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3. 죽음 이해교육 적용방안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다루는 공인된 자격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죽음의 실체를 전담하는 공인으로서 자격자를 양성하여야 하고, 양성된 자격자를 통하여 현실 속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직접 관리하는 자격제도는 국내의 ‘장례지도사’와 미국의 ‘임종상담사’, ‘장례지도사’, ‘시신보존위생사’가 있다. 국내에서 일부 사회복지사들의 관점에서 영역 통합을 주장(Kim, 2014: 180)하고 있으나 임종 전과 임종 후의 규제법률이 달라지는 제도 여건상 통합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임종 전에는 ‘사회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보건법’의 적용을 받지만, 임종 후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규제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지만, 각각의 법률들과 쉼을 같이하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이다.

죽음 교육 분야의 상황은 자격제도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죽음 교육은 죽음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이러한 죽음 준비영역의 이해 교육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대상자나 가족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노인복지와 죽음을 전담하는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물론 이외에도 죽음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과 자격소유자의 보수교육에도 죽음에 대한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적 차원에서 죽음 이해 교육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죽음 교육시스템의 제도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 죽음 관련 자격제도는 노년기 복지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와 요양과 간병을 돕는 기능 위주의 ‘요양보호사’, 가족들의 불안한 심리를 지원하는 ‘임종 상담사’, 장례를 전방위적으로 담당하는 ‘장례지도사’, 불완전 사체나 장기간 보존을 위한 ‘시신보존위생사’(Jeong, 2013: 110), 유족의 심리를 안정하도록 도와주는 ‘치유상담사’가 있다.

미국의 자격제도인 ‘임종 상담사’와 ‘시신보존위생사’, ‘치유상담사’는 제도권 밖이므로 차치하고라도 국내의 자격제도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의 죽음 이해에 대한 선행교육은 절실하다고 본다. 죽음 이해 교육은 세 가지 분야에서 정착되어야 한다. 첫 번째, 자격제도의 사전이해 교육을 바탕으로 필요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죽음과 연관된 자격증 교육과정을 통해 ‘존엄한 죽음’이 실생활에서 확장되어야 한다. 두 번째, 평생교육의 영역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국가와 지자체, 평생교육원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속까지 죽음 이해 교육을 확대해 간다면 교육시스템의 제도정착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학위과정의 전문분야 육성이다. 죽음과 연관된 직간접 산업 규모가 연간 5조 원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학사과정 7개소, 학사과정 1개소, 대학원과정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IV. 인지학 관점의 죽음교육 접근 필요성

1. 존엄한 인간의 지향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 인지학과 죽음학 예서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관을 함양하여 초감각적 세계에 접근하고자 하는 인지학은 영혼과 정신이 강립한 육체에 대해 내세의 자아성숙을 위한 기반으로 존중하고 있다. 죽음학에서도 파즈가 이야기했듯이 삶과 죽음을 같은 형태로 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존엄한 죽음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林, Jeon trans., 2013: 5-6). 결국, 존중받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외적 형태인 육체가 영혼과 정신의 단절을 통해 죽음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존귀함을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분리된 영혼의 경로는 알 수 없지만 남아 있는 육체에 대해 존중하지 않는 것은 동일체로서 존재하였던 것에 대한 반발이므로 동일체로서의 인간을 존중하듯이 존엄을 유지해야 한다.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듯이 인간 삶의 기본가치를 규명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존엄사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죽음이 존엄한 죽음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기본적인 전제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존엄이라면 굳이 죽음에 대한 처리방법을 두고 이견이 생길까 싶다. 의학적으로 죽음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과학적 발상이다. 생명을 유기체로 보고 다른 동물들의 죽음과 같이 처리한다면, 인간의 존엄은 사라지고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건 주검을 두고 예의를 갖추어 묘를 쓰는 것도 인간 존중에 대한 배려심의 발로이다. 인간의 증가로 사망자에 대한 처리방법이 달라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추모의 방법을 통해

존중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실생활을 영위하는 현실 속에서 ‘관념과 의식의 업에 의해 내세가 규정된다는 것’은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적 세계관에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세계관이다. 자아의 정체성을 찾고자 고민하는 형이상학적 사고 근간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라면, 호흡의 정지를 죽음으로 보고 사체를 유기체로 간주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다.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 존엄한 인간을 지향해야 할 이유가 그것이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한한 육체에 대해 인지학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는 인간에 대한 존엄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인간은 우주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이에 의해서 지탱되는 영력(divine power)을 지닌 최상의 창조물이다. 신체적인 구조는 성(星, zodiac)의 영향을 받으며, 기관은 하늘의 영향을 받는다. 그는 지구와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관련이 있다. 그의 신체적 특징은 지구와 관계되고 그의 삶은 하늘과 관계된다. 그는 대우주속의 소우주이다. 인간은 두 세상의 한 시민이다. 그의 존재는 초감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간을 교차한다(Lee, 2002: 6-7).

2. 과정으로서 삶과 죽음

규범적 생애발달사건으로 죽음은 통과의례이자 과정(Higuchi, Lee trans., 2002: 7)이다. 인지학 관점에서는 완전체로의 자아성숙을 위해 육체가 소멸한 후에도 업을 통해 규정지어진 내세의 새로운 육체에 영혼과 정신이 강림하여 또 다른 삶을 영위하게 된다고 한다. 그것은 윤회를 거듭해가며 깨달음을 통해 성숙한 자아가 육체·영혼·정신이 조화로운 완전체가 될 때까지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윤회를 통해 반복되는 삶 가운데 죽음의 역할은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죽음학’에서도 세 가지 설 중의 하나이기는 하나 내세의 관문으로서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내세를 미지의 세계로 규정하고 있으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영적 세계로 진입하는 것에는 인지학 관점이나 죽음학 관점에서 이견이 없는 것이다. 즉, 과정으로서 삶과 죽음에 대해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동양의 예학에서는 삶과 죽음을 통과의례로 보고 있다. 네 가지의 예학적 의례를 관례·혼례·상례·제례로 보고 인간의 성장기와 성숙기, 쇠퇴기에 대해 논하면서 존엄한 삶을 존중하는 방법을 의례절차로 다루고 있다. 육체와 영혼을 혼과 백으로 구분하고 죽음을 혼과 백의 분리작용이라고 보고 있으며, 분리될 때 나타나는 상실감과 애통함을 초혼(招魂)의 절차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존중과 존엄함을 표현하면서 남아 있는 자와 돌아가신 분의 이별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의례의 절차로 표현하고 있다. 삶이 주어졌을 때와 거두어질 때를 과정으로 보면서 내세에 대한 기대감을 ‘의례’로서 다루고 있다. 그런 면에서

바라보면 삶과 죽음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남겨진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또 다른 업인 것이다.

과정으로서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유한한 육체의 생명에 대한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물음에 대한 일시적 방편일 수도 있겠으나 초연한 모습으로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인간에 대한 존귀함이 있어야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가치와 규범이 난립하여 어지러워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과정으로서 바라보는 삶이 무미건조할지라도 완전체로서 ‘총체적 인간’이 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인식하게 된다. 과정으로서 바라보는 죽음은 초연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함으로써 삶에서의 부족함을 되새기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한다. 그런 과정으로서의 삶과 죽음이 자유로운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3. 교육을 통한 구조화

인지학의 전파를 위하여 루돌프 슈타이너는 발도르프 학교를 통해 교육체계를 세웠고, 현재 세계 곳곳에서 대안학교로 자리 잡고 있다. 슈타이너는 어린이의 유아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지학적 발달론을 제시하며 물리적 신체의 탄생기(태어남~7세)와 영혼이 역할이 증대되는 생명체의 탄생기(7~14세), 인식문제에서 독립된 판단을 얻으려는 감정체인 탄생기(14~21세)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성장하게 된다(Jeong, 1997: 10-12)고 하며 체험적 예술을 통해 물체의 본질을 탐색하는 작업과 행위예술로서의 ‘오이리트미(Eurythmy)’를 영적 각성의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죽음학에서도 죽음 교육전문가를 양성하여 죽음에 대한 이해를 도우면서 자유스럽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과 죽음에 대한 상실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죽음 대비 교육과 상실감에 대한 치유 교육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화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인문학 관점에서 피상적 학문의 영역인 인지학과 죽음학을 사유의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이다. 인간 본연의 삶에 대한 반성과 현실적인 극복방안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윤리적 인식이 결여된 우발적 행위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스스럼없는 행위가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의 제어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적 대안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인간 존중과 존엄의 시각을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적 구조화를 토대로 현실에 정착시켜 가야만 한다. 누구나 인지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 이루어졌을 때, 구조화된 교육의 틀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의 틀에서 존엄한 죽음을 이해하고 공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인간의 삶에 기여 하는 방편으로 자리 잡아 가야만 하는 것이다.

V. 결 론

1. 죽음 이해의 현실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다수의 사람이 가지는 생각은 ‘죽음’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다. 그 결과의 하나로 수많은 사건·사고를 보도하고 있는 언론매체들은 자극적인 죽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곤 한다. 한 인간의 삶과 죽음을 통해 배움과 나눔을 전달하는 방법이 많음에도 존엄함은 사라지고 없다. 인간의 지혜를 탐구하는 인지학과 죽음에 대한 의미와 준비를 탐구하는 죽음학은 ‘존엄한 인간’에 대해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육체·영혼·정신이 조화로운 완전체로서 인간에 대해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과정으로서의 삶과 죽음을 존중하고 있다. 내세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직관을 함양한 통찰력으로 초감각적 세계에 입문할 수 있다면 유한한 육체에 대해 더욱 존귀함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죽음은 또 다른 삶의 형태이다. 인지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육체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순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인지학에서 제시하는 내세의 삶은 업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육체에 영혼과 정신이 강림하여 완전체로서의 인간으로 다가가기 위한 과정임을 말하고 있다. 완전체의 의미는 영적이고 정신적이며 지적인 완결의 형태이면서 삶과 죽음을 넘어서 존재라고 보아야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깨달음의 세계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신적 통찰력을 얻은 존재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하기에 육체는 단지 과정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삶에 기인한 한정된 역할을 할 뿐이다. 인간이 삶의 유한함을 논하는 건 육체의 유한함에 한정하는 것이고, 정신적 성숙함에 기반한 완전체를 지향할 때 비로소 또 다른 삶으로서 죽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인지학과 죽음학의 무한한 영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위안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루돌프 슈타이너가 제시하고 있는 초감각적 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미지의 영역인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이며,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을 얻기 위해 노력해 보는 것만으로도 학문탐구의 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슈타이너는 ‘인지학에서 바라본 세 가지 영역’(Rudolf, 2018: 15-16)에서 “변화에 필요한 노력이 크면 클수록 직관을 통한 인식을 얻는 데는 더 유용합니다.”라고 함으로서 변화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도 소극적인 마음 자세로 인해 한계에 부딪힌 인지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순응하면서 죽음에 대한 사전 이해를 통해 존엄을 배운다면 나름대로 소중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소중한 삶은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잠시라도 존엄한 자신을 소홀히 대접할 수 없다.

2. 앞으로의 과제

본 연구는 죽음 교육의 정해져 있는 틀을 벗어나 기존보다 포괄적인 영역으로의 확장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죽음 교육의 실태는 서구로부터 유입된 학문적 기반에서 전통과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으며, 죽음 영역을 부정하거나 프로그램이 구축되지 않는 등의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죽음 교육은 제도권 안이든, 제도권 밖이든 자리를 잡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앞으로 지양하고 고쳐 나아가야 할 부분인 것이다. 그것이 죽음에 대한 준비를 위해 죽음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확인하고 인접 학문과의 융합을 통한 죽음학의 체계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그런 이유로 죽음 교육과정의 개설을 위한 자격제도의 활성화와 죽음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증 교육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인지학과 죽음학은 인간에 대해 존엄함을 지향하고, 삶과 죽음을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교육을 통해 구조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세 가지의 공통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현실 속에서 인문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한계를 고려할 때, 관념화된 학문의 체계를 세워 가치를 바꾸려는 시도는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죽음이라는 문제의 연구가 비록 종교적 관점에서 제기되었으나 실존주의 철학을 통해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Lee & Kang, 2015: 67) 인간 존재에 대한 존귀함을 기초로 하는 인지학, 또한 영향력과 파급력이 지대함을 간과할 수가 없다. 학문은 인간의 실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원론적인 이론이든, 교육의 지침이든, 실생활의 규범에서든, 현실 내에서 얻어지는 실용성이던지 간에 필수요소로서 존재해야 하고 도움이 되어야 한다.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결실이 소중한 것이다. 인지학의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죽음 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한다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본 논문을 준비하였으나 지식의 얽박함에 기인한 부족함으로 아쉬움이 크다. 인지학과 죽음학의 접합점을 찾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시킬 수 있다면, 죽음 교육분야의 발전에 기여 하는 시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다. 인간의 존엄을 전제로 죽음 대비를 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자유로운 삶과 죽음으로 인해 상실감도 감소 될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만 삶도 풍요로워진다. 풍요로운 삶은 우리 인간을 긍정적으로 바뀌게 하고 건전한 사회의 기반이 된다. 그러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본 연구가 아니었나 위로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서에 맞는 죽음 교육의 연구’도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까 생각되어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 두었다.

References

- Cho, C. Y. (2010). The Effect of self-esteem on the Death Recogni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20(2), 1-27.
- Choi, B. Y. (2002). Selfish Personality and Publicity in the Educational Passion of Koreans. *Journal of the Religious Education*, 15, 113-117.
- Dicken, Alphonse. *Death Education as a Humanities*. 전성곤 옮김 (2008). 인문학으로서의 죽음 교육. 서울: 인간사랑.
- Hall, P. Manly. *Do we bring our troubles with us when we come into this world?*. 윤민, 남기종 옮김 (2019). 환생, 카르마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 용인: 마름돌.
- Higuchi, K.(桶口和彦). *Death Education*. 이원호 옮김 (2002). 죽음에의 대비교육. 서울: 문음사.
- Jang, S. H. (2001). A Search for Paradigm Shift i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of the Educational Principles Research* 6(1), 1-35.
- Jang, S. O. (1995).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Physical Touch in Caring Situation. *Journal of the Korean fundamentals of nursing*, 2(2), 183-197.
- Jeon, I. G. (1996). Anthroposophical Theory of Education. *Journal of the Education Philosophy* 14(2), 219-236.
- Jeong, H. Y. (1997). The Ideological and Theoretical Foundations of Waldorf School Education. *Journal of the Pedagogical Research* 35(1), 10-12.
- Jeong, J. G. (2013). A Comparative Study of Law on the Qualification System related with the Funeral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nmun University.
- Kübler-Ross, Elisabeth. *On Death and Dying*. 이진 옮김 (2018). 죽음과 죽어감. 서울: 청미.
- Kim, E. J. (2019). Hospice Music Therapy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Hospice Palliative Medicine*, 21(4), 109-114.
- Kim, S. H. (2002). An Educational-Philosophical Meaning of Death Education. *Journal of the Religious Education*, 15, 205-223.
- Kim, S. R. (2014). A Study for challenge of social worker in relation to funer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fare Practice* 5(1), 175-198.
- Kim, S. D. (2008). Ritual folklife customs and funerary services at the Funerary House. *Journal of the Practical Folklore Society*, 2, 91-119.
- Lee, Y. J. & Kang, S. B. (2015). A Study on Educational Significance of Death Presented in Funeral Rites(喪禮) and Ancestral Rites(祭禮) of Liji(禮記). *Journal of the Educational*

Philosophy Study 37(1), 67-92.

- Roland, S. *So sterben wir*. 노선정 옮김 (2019). 죽음의 에티켓. 파주: 스노우폭스북스.
- Rudolf, Steiner. *Teosophy*. 양역관, 다카하시 이와오 옮김 (2016). 신지학. 서울: 물병자리.
- Rudolf, Steiner. *Teophilosophy·Cosmology·Religion*. 루돌프 슈타이너 전집발간위원회 옮김 (2018). 철학 · 우주론 · 종교. 서울: 한국인지학출판사.
- 고진호 (2019). R. 슈타이너의 인지학 강의 (2): 교육예술론을 중심으로. (Translated in English) Koh, J. H. (2019). Lecture on Anthroposophy of R. Steiner (2): Focusing on the Theory of Educational Art.
- 박건 (2012).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전망 및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 FOCUS 144권. (Translated in English) Park, G. (2012). Prospect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Funeral Director Certification System. *Journal of the Health and Welfare Issue & Focus* 144(25), 1-8.
- 林綺雲 et al. 生死學[Thanatology]. 전병술 옮김 (2013). 죽음학. 서울: 모시는 사람들.
- 임병식, 신경원 (2017). 죽음교육교본. 서울: 가리온. (Translated in English) Lim, B. S. & Shin, K. W. (2017). *The Death Education Textbook*. Seoul: Garion.
- 이철영 (2008). 상제례의 정석. 서울: 효사랑. (Translated in English) Lee, C. Y. (2008). *The Standard of Sangerye*. Seoul: Filial Love.
- 최준식 (2013). 죽음학개론. 서울: 모시는 사람들. (Translated in English) Choi, J. S. (2013). *Death theory*. Seoul: People You Serve.
- 한국하이데거학회 (1999). 하이데거와 근대성. 서울: 철학과 현실사. (Translated in English) Korea Heidegger Society (1999). *The Heidegger and Modernity*. Seoul: Philosophy and Reality.